



4면  
코로나19 극복  
기부행렬 이어져

# 전주매일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음 2월 16일) 제24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道-도의회, 민생활리기 '찰떡공조'

### 2456억원 긴급추경 편성 경제안정·방역 긴급지원 전국 첫, 2개월여 앞당겨

전북도는 도의회와 공조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긴급추경을 추진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13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456억원 규모의 긴급추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보다 빠른 이번 긴급추경은 보통 5월경에 실시했던 예년에 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9일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안 설명을 통해 긴급추경예산이 도민에게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사안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틀을 깨고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



코로나19 추경안 설명 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추경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임대료 지원, 건물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등도 파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고용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여행객 감소로 타격이 심한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지원, 골목상권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원, 수출 피해기업 지

원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방역대책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음압시설 등 방역 진단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에 우선 했다. 전북도는 영세업체 등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출 수단을 한 톨이라도 총동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가 겪고 있

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추경이 17일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도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유치원·초등 긴급돌봄 점심제공

전북교육청, 운영시간 오후 7시로 연장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일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1,909명이 신청해서 1,0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2차돌봄은 전체 원아 2만 1267명 중 4618명이 신청해 21.7%의 신청률을 보였다.

하지만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돌봄교실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참석은 저조한 편이다.

교육당국은 긴급돌봄 참여율이 저조하자 9일부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안전상의 문제, 교원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기존 오후 5까지만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자율적으로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교육부 예산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에 모두 점심이 제공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 점심 지원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특수학교 돌봄은 9일 현재 39명이 신청해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특수학교에서도 점심은 제공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신천지 시설 88곳 강제폐쇄

### 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연장 임실군 소재 1곳 추가 발견

전북도가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와 집회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는 10일에 종료되는 도내 신천지 시설 총 88곳에 대해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코로나 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타 지역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지난달 26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 등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또 지난 8일 신천지 교인 자진 신고로 임실군 소재 신천지 시설 1곳

을 추가 확인,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89곳으로 늘었다.

그간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6일 신천지 시설 66곳(신천지 공개 64, 도민 제보 2)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도민 제보와 정부 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6곳(도민 제보), 지난 2일 2곳(도민 제보), 지난 5일 14곳(정부 자료 13, 도민 제보 1) 등 모두 88곳을 시설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회금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연장 조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시설이 있으면 즉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마스크 구매 도민 불편 최소화

### 5부제·대리구매 현장 지원...줄서기 줄어

정부의 마스크 5부제와 대리구매제 시행에 따라 전북도가 마스크 판매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9일 도내 마스크 판매약국에 지원 인력을 파견해 요일별 마스크 5부제와 대리구매제 시행에 따른 신분증 확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입력

등을 도와 현장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요일별 마스크 5부제 등을 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따라 구매 수량을 1주 1인 2매

로 제한하고 공평한 구매를 위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매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이들이 구매할 수 있다.

또 마스크 구매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리구매제 시행으로 2010년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대리구매자를 통

해 구매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이날부터 10일까지 도내 마스크 판매 약국 909곳에 인력을 파견해 시책 홍보와 약국의 마스크 판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판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운영해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과 점검에는 전라북도자원봉사자 150명, 전라북도의료소방대원 114명, 전라북도 공무원 115명, 시군 공무원 530명이 참여한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d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